

잡아함 55. 음경(陰經)

날짜: 1월 18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45>

55. 음경(陰經)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내국(波羅捺國)의 선인이 살던 녹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음(陰)과 수음(受陰)을 설명하리라. 어떤 것을 음이라 하는가? 존재하는 모든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통틀어 색음(色陰)이라 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수 · 상 · 행 · 식도 또한 그와 같이 그 일체를 통틀어 수음(受陰) · 상음(想陰) · 행음(行陰) · 식음(識陰)이라 하나니, 이것들을 음(陰)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수음(受陰)이라 하는가? 만일 색에 대해 번뇌[漏]가 있어 그것을 취한다면, 그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큰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며, 수 · 상 · 행 · 식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음(受陰)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jiwoi](#) [잡아함경 다시 읽기](#)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